

바다의 맛을 얻다

옛날 사람들은 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연에서 얻었다. 특히 음식의 맛을 더했던 소금은 바다에서만 얻을 수 있었던 바다의 맛이였다. 제주 사람들은 자연을 슬기롭게 이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다.



애월해안로 |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043 ~ 애월읍 하귀2리 1869-1(약 10km)

구엄길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764-1 ~ 애월읍 구엄리 609-1(약 1.1km)

중구엄길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879-1 ~ 애월읍 구엄리 1207(약 0.8km)

신용로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290-2 ~ 애월읍 신엄리 1951-6(약 2.3km)

신엄연대길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81-11 ~ 애월읍 신엄리 2613-1(약 0.8km)

부롱수길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823-2 ~ 애월읍 신엄리 2956-1(약 0.7km)

신엄9길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279-10 ~ 애월읍 신엄리 973(약 0.8km)

애월해안로 | 구엄리 돌염전

애월해안로는 애월리에서 하귀2리까지 애월읍의 해안을 지나는 길이다. 이 길은 푸른 바다의 아름다운 경치를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한다. 애월해안로에는 해안을 터전으로 살아가던 제주 사람들의 문화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구엄리의 돌염전이다. 과거에는 소금을 얻기가 어려워 월급으로 소금을 받을 정도로 매우 귀했다고 한다. 더구나 제주는 해안가가 대부분 울퉁불퉁한 바위로 되어 있어서 소금을 얻기 위해 염전을 만들기가 어려운 지형이었다. 그래도 몇몇 마을에서는 이런 악조건을 뚫고 염전을 만들었는데 구엄리는 바닷가의 바위를 이용한 돌염전이 성행했던 마을이다. 평평하면서도 넓은 바위에 찰흙으로 독을 쌓아 웅덩이를 만들고, 그 안에 바닷물을 부어 햇빛과 바람으로 바닷물을 증발시켜 소금을 얻었다. 소금빌레라고도 불렀던 구엄리의 돌염전은 비교적 높은 곳에 있어서 밀물에도 바닷물이 닿지 않아 비교적 안전하게 봄, 여름, 가을에 걸쳐 소금을 생산할 수 있었다고 한다. 단, 겨울에는 강한 북서풍을 등에 업은 거센 파도가 바위를 덮치는 경우가 있어 생산이 어려웠다고 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소금은 초겨울에 주로 팔려나갔다. 아무래도 겨울을 대비해 김장이나 장을 담글 때 많은 소금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구엄에서 생산된 소금은 주로 가까이 있는 중산간 마을에 팔았다. 돈을 받고 팔기도 했지만 대부분 보리나 조 등의 곡식과 교환하는 방식이었다고 한다. 염전은 개인의 소유도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염전의 소유권을 팔기도 했다. 소금이 귀해서 그런지 땅 위의 밭보다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었다고 한다. 구엄리에서는 매년 17톤 가량의 소금을 생산했는데, 1950년대까지는 돌염전의 명맥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후 소금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염전을 하는 사람들은 사라지고 말았다. 구엄리에서는 마을의 전통을 잊지 않기 위해 돌염전의 역사를 널리 알리고, 염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옛 조상들의 지혜를 직접 느낄 수 있게 하고 있다.



구엄리 돌염전

구엄길 / 중구엄길 / 신용로 | 엄장이마을

애월읍의 동쪽에 위치하는 구엄리와 중엄리, 신엄리는 과거에는 엄쟁이 또는 엄장이라고 불리던 하나의 마을이었다. 엄장이라고 불리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추측한다. 절벽

이나 낭떠러지를 뜻하는 ‘엿장’이라는 말이 ‘엿장’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고, 소금을 생산하던 마을이어서 ‘엿장’이라고 하다 ‘엿장’이 되었다는 설도 있다. 이후 이 마을은 엿엿쟁이, 중엿쟁이, 새엿쟁이 마을로 나뉘었다. 이것이 각각 구엿리, 중엿리, 신엿리가 됐고, 신엿리에서 일부가 따로 떨어져 나와 용흥리가 되었다.

구엿길은 구엿리 마을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이다. 일주서로에서 애월해안로까지 이어지는 구엿길은 구엿리의 중심 도로이다. 이 마을에서는 예전에 해녀의 물안경을 만들었다. 해녀하면 누구나 검은 해녀복을 입고 머리에 물안경을 쓴 모습을 상상할 것이다. 하지만 물안경은 20세기 초반부터 사용되었다고 한다. 1950년대까지만 해도 물안경을 쓴 해녀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니, 물안경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해녀들의 부러움을 샀을 것이다. 당시 구엿리와 한동리에서 해녀 물안경을 많이 제작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이름을 따서 구엿리에서 제작된 것을 엿쟁이눈, 한동리에서 제작된 것은 켓눈이라 불렀다. 한동안 구엿리의 물안경은 큰 인기를 끌었지만 이후 좋은 품질의 물안경들이 나오면서 점점 자취가 사라지고 말았다.

구엿리와 중엿리를 이어주는 길이 **중구엿길**이다. 중엿리는 조선후기에 엿장이마을이 나뉠 때 중엿장리라는 별도의 마을로 분리되었지만, 이후 마을의 인구가 줄어들고 연이은 흉년으로 인한 세금문제로 신엿리와 합쳐졌다. 그러다 1950년대에 들어 신엿리에서 다시 분리되어 중엿리로서의 마을의 역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중엿리의 해안가에는 새물이라 부르는 용천수가 있다. 이 물은 마을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식수로 사용하던 물이라고 한다. 바다와 가까이 있어 파도가 심할 때는 물을 길는데 어려움을 겪고는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힘을 모아 방파제를 쌓았다. 그래서 바닷물과 섞이지 않는 풍부한 수량을 이용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피서객들의 물놀이 장소로 주로 활용하고 있다.

신용로는 신엿리와 용흥리를 연결하는 길이다. 신엿리는 엿장이마을에서 신엿장리로 분리되었다. 이후 1930년대에 신엿1, 2, 3구로 구분하다가 신엿1리는 신엿리로, 신엿2리는 중엿리로, 신엿3리는 용흥리로 분리되었다. 신엿리에는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연자방아가 남아있다. 제주의 마을들은 일반적으로 마을마다 커다란 방아를 두고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옛날부터 말이 많았던 제주는 방아를 끌 때 주로 말을 이용했다. 그래서 말방이라고도 불렀다. 말방아를 넣어두는 초가집을 마련해서 날씨가 좋지 않아도 작업을 할 수 있게 했다. 옛 모습 그대로의 말방아는 현재 2기가 남아있는데 신엿리의 말방아가 그 중 하나이다. 그래서 전통문화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문화재로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용흥리(龍興里)는 신엄리 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용흥이란 이름은 용이 일어난다는 뜻인데 신엄리에서 분리될 때 마을 동쪽의 높은 언덕을 용마루라고 부른 것에서 마을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옛날에는 동쪽 언덕에 소나무들이 많이 있어서 소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면 마치 파도치는 것 같다고 해서 '송랑이'라고 불렀었다. 용흥리에는 마을 곳곳에 어욱새미, 창구터물, 벼들못, 불래물, 쇠죽이못, 망구물 등의 여러 개의 연못이 있었다. 이 물들은 바위틈에서 솟아나는 해안가의 용천수와 달리 빗물을 받아 만든 봉천수가 대부분이었다. 용흥리 사람들은 이 물들을 식수와 마소를 기르는데 사용했다. 이후에 상·하수도가 들어오면서 이 물들을 사용하지 않게 되고, 도로확장 등으로 매립이 되면서 대부분의 연못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신엄연대길 / 부룡수길 | 남두연대와 부룡수코지

신엄연대길은 신엄리 해안가에 있는 남두연대로 이어지는 길이다. 바다를 감시하는 방어시설인 남두연대는 위급한 일이 일어나면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횃불을 밝혀 주변의 수산봉수와 고내봉수에 신호를 보내 위험을 알렸다. 신엄리 해안가에는 높은 절벽이 많아 연대를 설치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하지만 그로인한 단점도 있었는데 바로 배를 정박시키기가 힘들다는 점이다. 그래서 신엄리는 다른 마을과 달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포구가 있다.



남두연대

신엄연대길과 이어지는 부룡수길은 '부룡수코지'에서 따온 이름이다. 신엄포구에 가면 바다쪽으로 바위가 길쭉하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제주에서는 이런 지형을 '코지'라고 했다. 사람들은 이곳을 '부룡수코지'라고 불렀다고 한다. 오늘날과 같은 포구가 없었을 때 사람들은 이런 지형을 이용해 배를 정박시키는 지혜를 발휘했다. 신엄에는 부룡수코지 말고도 남돌이, 새개, 모살개 등이 포구 역할을 했다고 한다. 남돌이를 안쪽 포구, 새개를 중간 포구, 부룡수를 바깥포구라고 해서 바다의 상황에 맞는 곳을 이용했다. 지금도 부룡수코지는 신엄포구의 바깥에서 파도가 포구 안으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

신엄9길 | 박씨 정려각

신엄리 마을에는 절개를 지킨 조선시대 세 사람의 정려비를 모신 정려각이 세워져 있다. 일주서로에서 **신엄9길**을 따라 가다보면 마을 안에 있는 정려각을 만날 수 있다. 이 정려각에는 박계곤과 그의 딸, 그리고 몸종 고소락의 비가 있다. 박계곤은 조선 숙종 때 사람으로 임금이 승하했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로 올라가 왕의 무덤을 쌓는데 힘을 보탠다. 그리고 제주로 돌아오는 길에 바다 위에서 험한 파도를 만나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박계곤은 편지에 부모님께 죽음을 고하는 이별의 글을 쓰고는 바다에 몸을 던지고 말았다. 그런데 이 판자는 신기하게도 박계곤의 처가 물을 길러간 바다에 도착했다. 처는 이것을 보고 그의 죽음을 친척들에게 알렸다. 이 사실이 궁에 알려지자 나라에서는 박계곤의 충효를 기려 박씨 정문을 내렸다고 한다. 박계곤의 딸인 박씨 부인은 열녀로 유명했다. 남편과 일찍 사별을 한 후에 부인은 평생을 혼자 살며 정절을 지켰다. 이러한 박씨 부인의 삶을 듣고 고소락이란 여인이 찾아와 몸종을 자처했다. 그후 고소락은 박씨 부인을 정성껏 모셨다고 한다. 마을에서는 이 세 사람을 모시는 정려각을 마련해 그들의 절개를 기리고 있다.